

## 중세의 두 이웃 왕국\*

- 분열의 역사에서 '경계 없는 역사'로 -

### 성 백 용

- I. 머리말
- II. 언어상의 징후들: '프랑키아'에서 '프랑스'와 '도이칠란트'까지
- III. 정치외교상의 징후들: 베르딩 조약에서 12세기 초까지
- IV. 맺음말: '경계 없는 역사'

#### I. 머리말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역사전쟁'은 아주 오랜 내력을 갖는다. 잘 알다시피 그 전쟁은 주로 민족주의 시대의 분비물인 자국 중심의 역사기술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편향은 특히 자국 역사의 독자성이 처음으로 형체를 갖추었다고 가정된 중세사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세는 국가의 경계와 기본제도, 민족 언어와 문화, 의식 등의 원형이 형성된 시대로 여겨졌고, 따라서 민족사의 유구함과 연속성을 보증할 수 있는 역사적 준거로 이용되었다. 민족사 서술에서 중세사가 이렇듯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받게 된 것은 역사학 자체의 발전 과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19세기에 제도적 학문으로서 시민권을 얻은 역사학은 한편으로는 실증 정신으로 무장한 엄밀한 학문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학문적 권위로써 국가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봉사했다. 때문에 이 시대에 공식적인 민족사를 구축한 역사학자들은 다소 신화화된 고대보다는 좀 더 확실한 기록이 존재하는 중세에 더 신뢰를 두기 마련이었다.

민족사의 고대를 보듬어야 한다면 그것은 로마의 침략에 맞서 '민족해방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9-AS0011).

투쟁'을 이끌었다는 골족의 영웅 베르생제토릭스(Vercingétorix)나 게르만족의 영웅 헤르만(Herman)이 존재하기 때문이거나,<sup>1)</sup> 민족 기질의 유전자가 이 고대 종족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족의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가 이 고대에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중세의 기록을 통해서 고증될 수 있었으니, 왕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쓰여진 연대기와 권력 주위에서 생산된 문헌들이 오랜 세월의 권위를 등에 업고서 그 전거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고증된' 중세는 위로는 고대로, 아래로는 근현대로 민족사의 연속성을 확장할 수 있을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다.

이렇게 엮어진 민족서사는 가히 '오해의 정원(jardin des malentendus)'<sup>2)</sup>이라 할 만큼 술한 오해와 오류로 채워졌으니, 일개 고대 부족의 지도자를 '민족해방의 투사'로 둔갑시킨 것과 같은 무분별한 과거로의 투사(投射)가 바로 그런 오해와 오류의 근원이었다. 예컨대 타키투스가 기술한 게르만족은 민족이동 이후의 먼 후예와 곧장 동일시되었고, 또 잡다하기 이를 데 없는 종족들의 총체인 이 게르만족이 먼 훗날의 독일 민족과 동일시되었다. 마찬가지로 골족은 느닷없이 프랑스인들의 조상이 되었으니, 카이사르 시대에 골을 침입한 게르만 족장 아리오비스투스(Ariovistus)<sup>3)</sup>는 프랑스를 침범한 최초의 독일인인 셈이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인)'와 '독일(인)'이라는 관념조차도 없었던 중세 초의 인물들이 국적을 부여받고 민족사의 연속성을 지탱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대표적인 예로 클로비스에서 페랭, 샤를마뉴로 이어지는 프랑크족의 왕들은 곧 프랑스의 건국 아버지들로 떠받들어졌으며, 여전히 많은 프랑스인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한편 나치 시대의 독일에서는 '카를 대제인가 샤를마뉴인가' 하는 문제가 학계의 논쟁거리였고, '작센인들의 학살자'라는 비난과 독일제국의 위대한 첫 황제요 '동방정책'의 창시자라는 찬사

1) 브뤼에 따르면, 독일에서 후텐으로부터 1939년에 이르기까지 헤르만을 주제로 문학작품은 희곡 82편, 오페라 6편을 포함하여 모두 130편에 달한다고 한다. C. Brühl, *Naissance de deux peuples: Français et Allemands(IX<sup>e</sup>-XI<sup>e</sup> siècle)*, G. Duchet-Suchaux (trans.)(Paris, 1994), p. 38. 베르생제토릭스의 영웅화에 대해서는 전수연, 「골루아 베르생제토릭스 또는 재창조된 프랑스 고대의 영웅」, 『역사학보』 제173집(2002), 247-280쪽.

2) J. Morizet, H. Möller (dir.), *Allemagne-France: Lieux et mémoire d'une histoire commune*(Paris, 1995), p. 9.

3) 카이사르, 『갈리아 戰記』, 박광순 옮김(범우사, 1990), 50쪽.

가 엇갈리기도 했다.<sup>4)</sup>

특히 1870년부터 밀어닥친 민족적 증오와 원한의 물결 속에서 두 나라의 과거사는 분열과 대결의 틀에 껴맞춰지기 마련이었다. 843년 베르딩의 분할은 두 민족의 숙명적인 대결을 제시하는 돌이킬 수 없는 분기점이었고, 로렌은 그때부터 두 민족의 피할 수 없는 대결무대가 되었다. 독일 정부는 로렌이 동프랑크의 수중에 들어온 925년으로부터 천년째가 되는 1925년에 이를 성대히 기념했으며, 전후의 자르 문제를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이 기념행사를 ‘자르 1000주년’으로 명명했다.<sup>5)</sup> 모국어의 출생증명으로 여겨진 스트라스부르 선서 1100주년(1942)도 당연히 경축할 일이었다. 한편 프랑스에서 승리하는 조국의 영광은 독일에 대한 최초의 ‘거국적 승전’으로 기억된 부빈(Bouvines)의 신화를 빚어냈다. 그런데 사실 이 전투(1214)의 몸통은 카페조와 플랜태지닛조 사이의 세력다툼이었고, 삼촌인 존 왕을 원조하러 온 오토 4세와의 대결은 결가지였을 뿐이다. 게다가 존엄왕 필리프는 벨프가의 오토 4세와 제위다툼을 벌이던 호엔슈타우펜가의 프리드리히(2세)와 동맹을 맺고 있었으며, 거꾸로 여러 프랑스 제후들은 존 왕에게 매수되어 있었다. 요컨대 그것은 프랑스와 독일의 대결도 아니었고, 더 더욱이 민족적 대결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두 나라가 공동의 기원에서 나온 형제나라이며 형제애를 바탕으로 그 기원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생각과 주장 또한 면면히 이어졌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차대전 이후 기지개를 켜 화해 및 통합의 움직임과 더불어 민족사에 대한 회의와 반성의 목소리도 커져갔다. 2006년에 첫선을 본 양국 공동의 역사교과서는 이 같은 자성에서 비롯된 노력의 결실이다.<sup>6)</sup> 아직 대중의 역사의식에까지 깊숙이 파고든 것은 아니지만, 양국의 중세사학계 역시 그간의 편향된 시각들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오늘날 중세 초로 거슬러 올라가 민족, 민족성, 민족국가의 기원이나 실체를 논하는 학자는 아무래도 의심의 눈길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국

4) 카롤루스 마그누스의 국적 논쟁에 관해서는 안상준, 「중세의 민족의식과 카롤루스 마그누스: 독일·프랑스 신화적 민족사 서술과 통합적 유럽중세사의 지평」, 『역사교육』 제93집(2005), 177-196쪽. 또한 나치 시대의 편향된 중세사 해석에 관해서는 A. Nitschke, “German Politics and Medieval History”,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3(1968), pp. 75-92.

5) G. Zeller, *La France et l'Allemagne depuis dix siècles*(Paris, 1932), p. 10.

6)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김승렬·이용재, 『함께 쓰는 역사: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와 역사교과서 개선 활동』(동북아역사재단, 2008) 참조.

가가 민족에 선행하여 “다양한 외모와 복식과 의상과 관습과 언어를 지닌 여러 종족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창출해냈으며, 이렇게 창출된 민족이 14세기부터 국가의 가장 든든한 버팀대가 되었다는 게네(B. Guenée)의 주장은 이제 거의 상식으로 통한다.<sup>7)</sup> 게네는 비교의 대상으로 독일과 이탈리아를 지목하면서 여기서는 거꾸로 민족이 국가에 선행했다고 단정했다. 그런데 최근 브뤼(C. Brühl)와 같은 학자들은 독일에서도 의심할 바 없이 국가가 민족에 선행했다고 주장한다. 즉 독일 민족은 독일 국가의 산물이자 그 역은 아니라는 것이다.<sup>8)</sup>

그렇다면 프랑스와 독일은 언제 탄생했는가? 또는 어느 시점부터 프랑스(민족)의 역사, 독일(민족)의 역사를 논할 수 있는가? 이 글에서는 9세기부터 12세기에 이르기까지 두 왕국 및 ‘민족’을 지칭하는 어휘들과 두 왕국 사이의 정치외교 관계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 II. 언어상의 징후들: ‘프랑키아’에서 ‘프랑스’와 ‘도이칠란트’까지

민족사의 기원에 관한 역사학자들 사이의 논쟁은 접어두고, 일단 그에 관한 당시대의 집단적식이 언어에 남긴 흔적들을 더듬어보도록 하자. 저마다 이런저런 잣대를 가지고 어떤 국가와 민족이 어느 시점부터 존속했다고 하는 역사가들의 주장보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공간과 집단, 또는 이웃한 상대편 공간과 집단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는 언어상의 사실들이 더 직접적이고 유용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먼저 여러 명칭들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또 널리 쓰인 말은 ‘프랑키아(Francia)’였다. 이미 메로빙 시대부터 ‘프랑크족의 땅’ 또는 ‘프랑크왕국’ 전체를 가리키던 이 말은 카롤루스 대제의 시대 이후 좀 더 한정된 의미로 쓰여, 이탈리아와 나중에 프랑크족에게 복속된 지역들 — 이를테면 알레마니아, 아키타니아, 부르군디아, 프리지아, 셉티마니(Septimani, 또는 Gothia), 바스코니아(Wasconia) 등 — 을 제외한 프랑크왕국의 본령, 즉 루아르강에서 라인강에 이르는 지역을 가리키기도 했다. 바꿔 말하면 부르군디아나 아키타니아 등과 마찬가지로 프랑크왕국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 용법이 생겨난 것이

7) B. Guenée, “Etat et nation en France au Moyen Age”, *Revue historique*, t. 481(1967), pp. 17-30.

8) C. Brühl, *Naissance de deux peuples*, pp. 100, 301.

다. 그런데 843년 베르딩의 분할로 이 본령 자체가 세 왕국 사이에서 분할되고, 이들이 자기 왕국을 제각기 ‘프랑키아’라 부르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혼동을 피하는 길은 동(orientalis)·서(occidentalis) 등으로 구별하거나 그 지배자의 이름을 덧붙이는 것(예를 들면 regnum Lotharii, regnum Karoli)이었고, 이런 식으로 ‘프랑키아’는 이 왕국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가리키게 되었다.

한편 동쪽에서, 특히 작센조가 들어선 이후 ‘동프랑키아’라는 말은 그 왕국 전체를 가리키기보다는 그 영역 안의 진정한 프랑크족 땅인 라인강과 마인강 유역의 프랑켄(Franken, 아우스트라시아) 또는 프랑코니아(Franconia)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었다.<sup>9)</sup> 그리하여 오토 폰 프라이징(Otto von Freising)의 『두 도성의 역사』에 이르러 ‘프랑크인’이란 말은 기술하는 시대와 문맥에 따라 앞서 말한 세 가지 영역 가운데 어느 하나의 주민들을 가리키게 되었다.<sup>10)</sup> 이 같은 지리적 축소 현상은 서쪽 왕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여기서 ‘프랑키아’가 가리키는 범위는 부르고뉴나 아키텐, 프로방스 등지와 구별되는 루아르강과 피즈강 사이의 지역으로 오그라드는 경향이 있었다. 이 같은 경향의 총착점은 잘 알다시피 ‘프랑키아’가 센-우아즈-마른 강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섬과 같은 지역, 즉 카페가의 영지들이 있던 일드프랑스(Ile-de-France)를 가리키게 된 것이다.<sup>11)</sup> 하지만 서쪽 왕국에서 그 말은 일드프랑스를 근거지로 했던 지배 왕조의 운명과 결과적으로 궤를 같이 했다. 즉 왕권이 극도로 위축된 10-11세기를 지나고 왕권과 더불어 왕령(王領)이

9) *Ibid.*, pp. 68-75. 이런 용법은 멀리 베르딩의 분할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컨대 『프랑크왕국 연대기』는 823년의 “5월 소집(champ de mai)에 응해 프랑키아 전체가 아니라 동프랑크, 작센, 바이에른, 알레마니아, 그리고 인접한 부르군디아와 라인 유역에서 전사들이 모여들었다(Mense Maio conventus in eodem loco habitus, in quo non universi Franciae primores sed de orientali Francia atque Saxonia, Baioaria, Alamannia atque Alamanniae contermina Burgundia et regionibus Rheno adiacentibus adesse iussi sunt)”고 기록한다. *Annales Regni Francorum*, F. Kurze (ed.)(Hanover, 1895), p. 160.

10) Otto von Freising, *The Two Cities: A Chronicle of Universal History to the Year 1146 A. D.*, A. P. Evans, C. Knapp (ed.)(Columbia Univ., 1928), Book VI 참조.

11) 블로크에 따르면 이 지명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387년 프루아사르의 『연대기』 제2권에서이다. M. Bloch, *The Ile-de-France: The County around Paris*, J. E. Anderson(trans.)(London, 1971), pp. 9-10.

확장되어 나가면서 그 말은 오늘날처럼 프랑스 전체를 지칭하는 방향으로 지리적 범위가 다시 팽창해간 것이다. 앞서 말한 오토 폰 프라이징의 용법과 사뭇 다르게 이곳에서는 같은 ‘프랑크인’이라는 말이 언제나 국왕의 신민 전체를 가리켰고, 그렇기 때문에 국왕을 ‘프랑크인들의 왕(rex Francorum)’이라고 일컫는 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프랑크족의 트로이 기원에 관한 옛 전승을 발굴하고 프랑스 왕조의 뿌리를 트로이의 영웅들에 비유하기 시작한 것도 그러한 팽창의 일환이었다. 이 전설에 따르면, 프랑크족의 기원에는 프리아모스와 안테노르의 지도 아래 다뉴브 유역으로 떠나 시캄브리아라는 도시를 세운 12,000여의 트로이 유민이 있었다. 그 후손인 시캄브리아인들은 로마제국 말기에 발렌티아누스 황제의 요청으로 흉포한 알란족을 쳐부수고 그 보상으로 10년 동안 조공을 면제받았다. 그런데 이 기원이 차차 그들은 아예 로마의 명에서 벗어나고자 다시 라인강 유역으로 이주했다는 것이다. 어떤 전승은 이때 황제가 이 족속을 ‘사납다(ferox)’는 뜻으로 ‘프랑키(Franci)’라 불렀다 하고, 또 어떤 전승은 망명한 트로이인들이 추대한 왕 프랑쿠스(Francus, 또는 Francion)의 이름에서 그 종족명이 유래했다고 한다. 더 나중에 이 프랑쿠스는 헥토르의 아들로 프랑스 왕조의 비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이름의 어원이 ‘자유롭다’는 뜻의 형용사(‘francus’)라는 선후가 뒤바뀐 풀이가 널리 받아들여졌다.<sup>12)</sup> 예컨대 12세기 중엽 카를루스 대제의 총북 튀르팽(Turpin)을 사칭하여 가상의 연대기를 지어낸 작자는 “예전에 ‘갈리아(Galle)’라고 불린 이 땅은 이제 ‘프랑스’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유인즉 일체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기 때문(quele fu franche de tot servage d'autre gent)”<sup>13)</sup>이라고 말한다.

요컨대 ‘프랑키아’는 메로빙왕국과 카롤링제국을 가리키다가 843년의 분할 이후에는 세 왕국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가리켰고, 대략 10세기부터 동프랑크에서든 서프랑크에서든 그 범위가 프랑크족의 본거지 — 각각 프랑켄과 일드

12) J. Poujol, “Etymologies légendaires des mots *France* et *Gaule* pendant la Renaissance”, *PMLA*, Vol. 72(1957), pp. 900-914. 프랑크족의 트로이 기원설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C. Beaune, *Naissance de la nation France*(Paris, 1985), pp. 25-74; I. Wood, “Defining the Franks: Frankish Origins in Early Medieval Historiography”, S. Forde (eds.), *Concepts of National Identity in the Middle Ages*(Univ. of Leeds, 1995), pp. 47-57.

13) *Le Turpin français, dit le Turpin I*, R. N. Walpole (éd.)(Toronto, 1985), p. 45.

프랑스 일대 —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동쪽과 달리 서쪽에서는 그 명칭이 왕국의 영역 전체를 일컫는 재확장 현상이 일어나 ‘프랑스’와 동의어가 되고, 그와 더불어 ‘프랑크인’은 곧 ‘프랑스인’으로 옮겨간 것이다. 예컨대 1083년의 한 공문서는 국왕 필리프 1세를 ‘프랑키아의 통치자 필리프(Philippo regnante in Francia)’로 일컬으며, 1100년경에 쓰여진 위그 드 플뢰리(Hugues de Fleury)의 『세계 연대기』는 대머리왕 샤를을 아예 최초의 ‘프랑스 왕’으로 불렀다. 그리고 존엄왕의 치세부터 프랑키아는 왕국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버젓이 자리잡고, 1254년에 이르러 상서부는 ‘프랑크인들의 왕’ 대신 ‘프랑키아의 왕(rex Franciae)’이라는 칭호를 썼다.<sup>14)</sup> 이는 오래 전 동쪽 왕국에서 작센족 출신인 오토조의 상서부가 국왕의 칭호에 ‘프랑크족’을 덧붙이기를 점점 더 기피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십자군 시대에 비잔티움 제국과 동방에서는 서유럽 사람들을 두루 프랑크인으로 불렀거니와, 기베르드 노장(Guibert de Nogent)이 제1차 십자군의 역사에 이름 붙인 ‘프랑크인들’을 통한 신의 역사(Gesta Dei per Francos)에서 프랑크인들은 실상 프랑스인들에 다름 아니었고, 1095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십자군 원정을 호소하기 위해 처음으로 행차한 곳도 바로 이들의 왕국이었다.

프랑키아라는 말의 착잡한 역사에 비해 고대의 유물로 내려온 ‘갈리아(Gallia)’와 ‘게르마니아(Germania)’의 구분법은 좀 더 선명한 궤적을 그렸다. 이 구분법은 카이사르의 고안물은 아니지만 “갈리아에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준” 이 정복자의 저술(『갈리아 전쟁기』)을 통해 널리 퍼졌고, 특히 지식인들의 어휘 속에 뿌리를 내렸다.<sup>15)</sup> 둘 다 어원은 불분명하지만, “레누스(Rhenus: 라인) 강 맞은편의 게르마니(Germani)인”들을 켈트족이 ‘이웃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sup>16)</sup> 여하튼 이 말들은 본래 종족의 경계와 별 관련이 없는 지리적 명칭, 그것도 라인강이라는 경계를 빼고는 그 범

14) C. Beaune, *Naissance de la nation France*, pp. 418-419.

15) 예컨대 로마제국의 속주와 관구 이름으로 새겨진 ‘갈리아’라는 지명은 중세에 들어서 리옹 대주교좌의 관할 영역을 가리키는 말로 교회 조직을 통해 보존되었다. 『갈리아 전쟁기』의 지적 파급력에 대해서는 K. Pomian, “Francs et Gaulois”, P. Nora (dir.), *Les Lieux de Mémoire* III/1(Paris, 1992), pp. 60-62.

16) 인용구절은 『갈리아 戰記』, 21쪽. ‘게르만’은 만일 켈트어에서 나왔다면 ‘이웃(gair) 사람(man)’으로 풀이된다. 한편 골족의 ‘형제’라는 뜻으로 풀이하는 학자도 있는데, 이 경우에 어원은 라틴어의 ‘germanus’일 것이다. G. Guicheteau, “Les trois Europe de l’an 500”, *L’Européen*, Nos. 19-21(1988), pp. 20-25.

위가 모호하기 짝이 없는 명칭이었다. 예컨대 아인하르트는 카롤루스가 “라인강과 비스틀라강, 대서양과 다뉴브강 사이에 거주하며 습속은 제각각이지만 언어는 거의 같은 모든 야만 종족들을 복속시켜 조공을 바치게 했다”고 말하면서 이 종족들의 예로 “벨라타비, 세르비아, 아보드리테스, 보헤미아인들” 같은 슬라브족들을 열거한다.<sup>17)</sup>

중세 내내 두 용어는 애초의 지리적인 의미를 유지했으나, 암암리에 정치적 경계 관념이 끼어드는 것을 피할 길이 없었다. 이미 투르 주교 그레구아르(Grégoire de Tours)와 같은 메로빙 시대의 저자들에게서 게르마니아와 프랑키아가 동의어처럼 쓰이기 시작했고, 베르딩의 분할 이후로 갈리아는 서프랑크와, 게르마니아는 동프랑크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잘 알려진 예로, 9세기 후반 렌스 대주교인 앙크마르(Hincmar)는 동프랑크를 상속받은 루트비히(2세)를 간혹 ‘게르마니아의 왕(rex Germaniae)’으로 불렀다(그래서 오늘날에도 ‘독일 왕’ 루트비히라고 불린다). 또한 10세기 후반의 저자인 리세(Richer)는 클로비스를 ‘갈리아인들의 첫 기독교 왕’으로 일컫는가 하면 대머리왕 샤를을 두고는 ‘게르만인들과 갈리아인들의 위대한 황제(Germanorum atque Gallorum imperator egregius)’라 기록했다. 장차 프랑스왕국은 곧 ‘갈리아왕국(regnum Galliae)’으로, 그리고 그 주인은 ‘갈리아(인들)의 왕’ 루이이거나 필리프로 불릴 것이었다. 리세와 같은 시기에 동쪽 왕국에서 활동한 비두킨드(Widukind von Corvey)에게도 ‘갈리아=서프랑크, 게르마니아=동프랑크’의 등식은 똑같이 나타났다.<sup>18)</sup>

이 같은 등식화는 ‘갈리아’와 ‘게르마니아’가 프랑스와 독일의 다른 이름으로 자리잡는 첫걸음임에 틀림없지만, 적어도 중세의 대부분 동안 이 명칭들은 여전히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지리적 의미에서 좀처럼 벗어나지는 않았으며, 근현대에 와서처럼 어떤 민족의식이나 정체성을 내포하고 표상하는 용어로 쓰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것들에 정치적 색깔을 입힌 것은 주로 근대 초의 인문주의자들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뒤부아(P. Dubois)나 노가레(G. Nogaret) 같은 법학자들이

17) Einhard & Notker the Stammerer, *Two Lives of Charlemagne*, L. Thorpe (trans. & ed.), (London, 1969), p. 69.

18) Richer, *Historiarum libri*, H. Hoffmann (ed.) I, 3-4, pp. 38-39 (<http://mdz10.bib-bvb.de/~db/bsb00000607/images/index.html?seite=1>); C. Brühl, *Naissance de deux peuples*, pp. 83-87.

옥좌 주위에 포진하여 왕권의 이데올로기로 나서면서 학문이 본격적으로 권력에 봉사하기 시작한 것은 1300년 무렵이었다. 이들의 후예로 왕국과 민족의 정치적·문화적 영광에 대한 자긍심이 강했던 인문주의자들은 고문헌과 언어에 대한 탐구 속에서 민족의 '조상 골족'을 발굴해냈다. 대표적으로 장 르메르(J. Lemaire de Belges)는 성 히에로니무스, 이시도르(Isidore de Seville) 등을 원용하여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서 갈리아의 어원을 찾고, 급기야 골족의 뿌리를 성서상의 계보에서 야벳의 장남인 고멜에 비꼬려했다. 기욤 포스텔(G. Postel)은 한술 더 떠서 골족은 고멜의 후손이고 독일인은 고멜의 장남인 아스그나스(아쉬케나지, 『창세기』 10:3; 『역대상』 1:6)의 후손이라 단정하고, '재발견'되었다는 바빌로니아 사제 베로수스(Berosus)의 저술(BC 3세기)을 근거로 대홍수 이후 세계의 보편적 지배권이 장자상속(노아-야벳-고멜)을 통해 골족에게 이전되었다는 주장을 폈다.<sup>19)</sup> 한편 장 보댕은 스트라본을 전거로 켈트족과 게르만족을 준별하고, 골족이 이오니아어를 썼으므로 그들의 발상지는 트로이나 그리스일 수밖에 없으며 그 시조는 야벳이 아니라 그의 후손일 것이라고 추측했다.<sup>20)</sup>

프랑스 인문주의자들이 골족 조상을 발명했다면 독일의 인문주의자들은 게르만족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민족 신화'를 창조했다. 15세기 중엽 교황청이 독일 제후들을 상대로 투르크에 대한 전쟁을 호소하고자 게르만족의 전사적 미덕을 찬양하는 과정에서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를 언급한 것이 발단이였다.<sup>21)</sup> 비록 이탈리아인들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되었지만 오랜 동안 잊혀져 온 이 고대 문헌의 재발견은 독일 민족의식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사건이

19) 그가 원용한 어원론에 따르면 '갈리아'는 그리스어에서 '우유(또는 '우유처럼 흰')'이고, 바빌로니아어와 히브리어에서는 '파도를 타는' 또는 '옮겨진 자들(Gollim)'이다. 여기서 끌어낸 그의 추론은 골족은 '대홍수에서 구출된 자들'이라는 것이다. 더욱 결정적인 근거는 야벳의 아들 "고멜에게서 갈라시아인, 즉 갈리아인이 나왔다(Gomer ex quo Galatae, id est Galli)"는 이시도르의 논의인데, 이는 소아시아의 켈트족인 갈라시아인과 골족을 혼동한 것이다. J. Poujol, "Etymologies", pp.906-910; K. Pomian, "Francs et Gaulois", pp. 65-67 참조.

20) J. Bodin, *Méthode pour faciliter la connaissance de l'Histoire*, P. Mesnard (éd.), *Oeuvres philosophiques de Jean Bodin*(Paris, 1951), pp. 453-454.

21) 손은주,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와 독일 민족의식」, 『독일문학』 제66집(1998), 244-266쪽; K. C. Schelchase, *Tacitus in Renaissance Political Thought*(Univ. of Chicago, 1976) 참조.

였다. 게르만족의 소박하고 건전한 삶과 도덕, 고대 로마문명의 패덕에 대한 저자의 비판은 로마 가톨릭을 혐오하고 이탈리아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했던 독일 인문주의자와 종교개혁가들에게 청량한 메시지로 다가왔다. 특히 타키투스가 『연대기』에서 자세히 묘사한바, '게르마니아의 자유'를 위해 그것도 영광의 절정에 올라선 로마제국을 상대로 싸운 '게르마니아의 해방자' 아르미니우스(Arminius)<sup>22)</sup>의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울리히 폰 후텐은 그를 로마의 압제에서 독일을 해방한 '게르만의 부르투스'로 찬양했고, 바이에른의 역사가 아벤티누스(J. Aventinus)는 그에게서 독일 서사시의 영웅 지그프리트의 모습을 그리면서 '헤르만'이라는 게르만식 이름을 지어주었다. 어떤 이들은 타키투스와 위조된 베로수스의 저술을 전거로 내세워 게르만족이 그리스나 이탈리아인보다 더 오래된 토착민이며(따라서 프랑크족의 트로이 기원설 따위는 부정된다.), 그 시조의 계보가 노아의 직계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아벤티누스는 트로이왕국에 앞서 독일왕국—정확히 대홍수 이후 71년째부터—이 존재했으며, 프랑크인과 바이에른인들이 트로이 궁정의 최고 귀족층이었다고 주장했다.<sup>23)</sup>

이렇듯 막연한 지리적 명칭에 불과했던 '갈리아'와 '게르마니아'라는 말이 먼 옛날 그 땅위에 살았던 종족과 그들에 관한 신화화된 기억들에 휩싸인 채 프랑스와 독일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말로 옮겨간 것은 주로 15-16세기,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시대였다. 프랑스에서 카롤루스가 공식적인 숭배의 대상이 되고, '갈리아인'을 일컫는 라틴어 '갈루스(gallus)'와 동음이의어인 수탉이 민족적 상징으로 발돋움한 것도 이 시기였다. 또한 카롤루스라는 옛 황제가 프랑스 태생인지 독일 태생인지, 어느 나라 말을 썼는지, 또는 그가 태어났다고 알려진 라인강 좌안은 어느 나라 땅인지 하는 문제들이 양쪽의 인문주의자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진지한 논쟁거리가 된 것도 이 시기였다.<sup>24)</sup>

그러나 실제로 이 시기에 이르러 대중적인 명칭으로 자리잡은 것은 이 말들이 아니라 바로 현재와 같은 나라이름들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서쪽 왕국에서의 장기적인 진화는 비교적 간명하다. 여기서는 센강에서 뫼즈강에 이르는 '작은 프랑키아'를 중심으로 왕국 내의 다른 '작은 왕국들'이 통합되어가면

22) 타키투스, 『연대기』, 박광순 옮김(범우사, 2005), 164, 198쪽.

23) C. Brühl, *Naissance de deux peuples*, pp. 35-36, 40.

24) 이에 관한 논의는 성백용, 「샤를마뉴에 대한 중세 독일과 프랑스의 엇갈리는 기억」, 『프랑스사 연구』 제17호(2007), 5-34쪽 참조.

서 프랑키아의 정체성을 공유하게 되었고, 특히 동쪽 왕국에서 10세기 초에 카롤링조가 단절되고 권력이 작센인들에게 이동하면서부터 ‘프랑스’가 ‘프랑키아’의 전적인 후신임을 자처할 수 있었다. 반면, 동쪽 왕국에서는 ‘작은 프랑키아(프랑켄)’가 다른 ‘작은 왕국들’에 대해 우위에 있었기는 해도 결코 중심적이거나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너무 편협한 ‘프랑키아’도 반대로 너무 막연한 ‘게르마니아’도 여러 종족들을 아우르는 통칭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이는 10세기 중엽 랭스의 플로도아르(Flodoard)가 동프랑크 왕을 가리켜 이도저도 아닌 ‘라인강 저편의 왕(rex Transrhensis)’이라 일컫은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sup>25)</sup>

결국 이것들 대신에 그런 통칭으로 뿌리를 내린 말은 ‘theodiscus’ 및 ‘teutonicus’에서 나온 명칭들이었다. ‘theodiscus’는 인도유럽어의 어근 ‘teuta(종족·부족)’에 형용사형 어미(-isk)가 붙은 단어로 라틴어나 로망어(즉 외국어 walhisk. 현대 독일어의 welsch)가 아닌 일반 인민의 언어, 즉 게르만 토속어를 가리키는 ‘diutisc(OE. theodisc)’를 라틴어로 옮긴 형태이다. 이런 형태로 처음 등장한 예는 786년에 교황에게 올린 한 사절의 보고인데, 이에 따르면 잉글랜드에서 열린 종교회의에서 이전 회의의 결정사항이 라틴어와 ‘토속어로(theodisce)’ 낭독되었다는 것이다. 813년 카롤루스 마그누스가 소집한 한 종교회의는 라틴어 설교를 지역에 따라 로망어나 토속어로 통역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언어적 분화의 가장 오래된 기념물로 알려진 스트라스부르 선서(842) 또한 ‘로망어(romana lingua)’와 ‘토속어(theudisca lingua)’로 상대 진영에 낭독되었다. 11세기에 들어서 이 말은 언어에서 민족으로 가리키는 대상이 옮겨가는 조짐이 나타났으나,<sup>26)</sup> 이런 용법에서는 좀 더 고상

25) K. F. Werner, “Les nations et le sentiment national dans l’Europe médiévale”, *Structures politiques du monde franc, VI<sup>e</sup>-XII<sup>e</sup> siècles*(London, 1979), p. 290. 더군다나 ‘게르마니아’는 라인강 동쪽을 가리키므로 뫼즈강과 라인강 사이의 프랑키아(알사스-로렌)를 포함할 수도 없었다.

26) 이와 관련하여 학자들이 주요한 증거로 드는 것은 오토 3세가 1002년 로마인들의 반란에 대해 “너희들이 나의 로마인들이란 말인가?... 너희에 대한 사랑으로 나는 내 동족인 작센인들과 모든 테오티스크들을 저버렸다(Vosne estis mei Romani?... Amore vestro meos Saxones et cunctos Theotiscos, sanguinem meum, projecit)”고 질책했다는 1015년경의 기록이다. K. F. Werner, “Les nations et le sentiment national”, pp. 297-298.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의 Deutsch와 같은 공통의 독일어가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작센인들과 바이에른인들은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는 했지만 제각

한 단어인 ‘teutonicus’라는 라틴어 단어에 밀려나고 말았다.

같은 어근(teuta)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이 말의 직접적인 어원은 게르만의 일족으로 기원전 2세기 말에 킴브리족(Cimbri)과 함께 남하하여 서진한 튜튼족(Teutonnes)이다. 이 단어는 처음에는 theodiscus와 같이 주로 언어와 관련하여 쓰이다가 주로 이탈리아인들 사이에서 — 즉 당사자가 아닌 국외인들에 의해서 — 알프스 이북을 가리키는 지리적 명칭으로 쓰이고, 900년 무렵부터 민족을 지칭하는 말로 옮겨갔다. 단적인 예로 969년 오토 1세는 “칼라브리아인과 모든 이탈리아인, 프랑크인(로타링기아), 튜튼인에게(tam Kalabris quam Italicis, Francisque atque Teutonicis)” 법령을 내렸는데, 이들은 각각 그리스어, 라틴어, 로망어, 게르만어를 쓰는 민족들을 나열한 것이다.<sup>27)</sup> 베르너에 따르면 제국 내의 몇몇 종족들을 통칭하는 이 새로운 표현은 1000년 무렵에 이르러 널리 통용되고, 이어서 ‘튜튼인들의 왕(rex Teutonicorum)’, ‘튜튼 왕국(regnum Teutonicorum·teutonicum)’ 같은 표현이 등장하며 이 나중의 표현은 1042년부터 교황청의 상서부에, 그리고 1077년부터는 하인리히 4세의 상서부에 도입되었다.<sup>28)</sup>

끝으로, ‘도이치(Deutsch)’와 더불어 독일을 통칭하는 말로 널리 유포된 것은 ‘알레마니아(Alemannia·Alamannia)’라는 단어였다. 원래 알레마니아는 쉬바벤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번에도 주로 이탈리아인들에 의해서 독일 전체와 혼동되고, 그 결과 먼 옛날 클로비스가 툴비악에서 무절렀다고 하는 ‘알레마니인(Alemanni)’ 역시 독일인과 한통속이 되어버렸다. 이 같은 등식은 1045년의 한 문서에서 하인리히 3세를 ‘알라만인들과 로마인들, 부르고뉴와 프로방스의 황제’라 기록한 것에서 처음으로 뚜렷이 나타났고, 다음 세기부터 점점 더 자주 쓰여서 13세기에는 교황청 상서부에서조차 ‘알라마니아 왕국(regnum Alamanniae)’이라는 표현을 선호하고, 14세기에 이르면 독

기 작센어와 바이에른어를 썼다.” T. Reuter, “The Making of England and Germany, 850-1050: Points of Comparison and Difference”, A. P. Smyth (ed.), *Medieval Europeans: Studies in Ethnic Identity and National Perspective in Medieval Europe*(New York, 2002), p. 65.

27) C. Brühl, *Naissance de deux peuples*, p. 107.

28) K. F. Werner, “Les nations et le sentiment national”, pp. 297-298. 교황청은 ‘게르마니아’ 대신 이 표현을 유포시킨 주역인데, 여기에는 독일 밖의 영토에 대한 하인리히 4세의 권리주장을 차단하려는 교황청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 T. Reuter, “The Making”, p. 65.

일에서도 다른 명칭들을 앞지르게 되었다.<sup>29)</sup> 그러나 대중의 독일어 속에 새겨진 것은 바로 그 대중의 언어를 가리키는 말(*diutisc*)에서 나온 ‘도이칠란트(*Deutschland*)’ — 또는 14세기까지 훨씬 더 널리 사용된 ‘도이치 란데(*deutsche Lande*)’라는 복수형 — 였다.<sup>30)</sup>

무릇 사람들의 의식과 언어가 시기적으로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휘들의 내력을 통해서 ‘독일’과 ‘프랑스’의 분기점을 밝히기란 물론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공통의 뿌리를 환기시키는 ‘프랑크’라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시점, 또는 그 대신에 왕국과 그 주민 전체를 총칭하는 새로운 어휘가 통용된 시점을 판단의 준거로 삼는다면, 대략 11세기 말-12세기 초를 그러한 분기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선 이 무렵이면 ‘프랑키아’나 ‘프랑크인들’ 앞에 ‘동쪽’, ‘서쪽’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방식은 자취를 감추며, 브뤼에 따르면 1077년이 자신이 아는 한 동프랑크왕국을 ‘프랑크인들의 왕국’이라고 지칭한 마지막 시점이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이 시점까지는 적어도 지식인들의 어휘에서 프랑크제국의 기억이 살아있었고 이 말을 대체할 만큼 대중적인 어휘도 아직은 없었다는 뜻이다. 일례로 1045년경에 콘라트 2세의 전기를 쓴 비포(*Wipo*)는 분명 ‘튜튼인들(*Teutonici*)’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음에도 여러 종족들의 이름 — 프랑켄인(*Franci*), 로렌인(*Liutharingi*), 작센인(*Saxones*), 노리쿰인(*Norici*), 알레마니인 — 을 죽 열거하고 있다. 요컨대 ‘튜튼’이나 ‘도이치’ 같은 수식어들은 아직 널리 쓰이지 않았으며 다음 세대에 가서야 ‘프랑크’를 대체하기 시작했던 것이다.<sup>31)</sup>

29) C. Brühl, *Naissance de deux peuples*, pp. 92, 114-117.

30) M. 폴브룩,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 김학이 옮김(개마고원, 2000), 30쪽. ‘독일민족의 신성로마제국(*Heiliges Römisches Reich Deutscher Nation*)’이라는 공식 명칭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1474년, 1512년이다. J. Tulard, (dir.), *Les empires occidentaux de Rome à Berlin*(Paris, 1997), p. 250. 주위 나라들에서 독일을 부르는 이름은 무척 다양하다. 이탈리아에서는 *Tedeschi*(민족. 국가는 *Germania*), 스웨덴에서는 *Tyskland*라 하고, 영국과 러시아는 *Germany*, *Germanija*라 하며, 프랑스와 에스파냐는 *Allemagne*, *Alemania*라 부른다. 강철구, 『중세 독일 국가의 형성』, 이민호 외, 『독일사의 제국면』(느티나무, 1991), 13쪽.

31) G. Zeller, *La France et l'Allemagne*, pp. 66-67; T. Reuter, “The Making”, p. 65; C. Brühl, *Naissance de deux peuples*, pp. 302-303.

### III. 정치외교상의 징후들: 베르딩 조약에서 12세기 초까지

그럼 이제 어휘의 영역을 떠나서 실제 정치외교의 영역에서 두 왕국이 과연 어느 시점부터 분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언제부터 프랑스왕국과 독일왕국의 역사를 논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오랫동안 양국의 역사학자들이 그러한 분기점으로 주목한 사건은 카롤링제국을 분할한 843년의 베르딩 조약이었다. 베르딩 조약 1000주년을 맞이한 1843년 독일에서는 바이츠(*G. Waitz*), 드로이젠(*J. G. Droysen*) 등이 참여한 학술대회를 열어 이 ‘독일사의 시작’을 성대히 기렸고, 프로이센 국왕의 명에 따라 5년마다 최고의 독일사 저술에 수여하는 ‘베르딩상(賞)’이 제정되기도 했다. 프랑스의 역사가들 또한 그 조약을 중세 프랑스의 서막이라거나 프랑스왕국을 공식화한 사건으로 평가했고, 이때부터 서프랑크를 ‘프랑스’로, 따라서 대머리왕 샤를을 ‘프랑스’의 첫 국왕으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물론 이후로 많은 수정론이 꼬리를 물었다. 이를테면 동·서 프랑크왕국의 경계를 그은 870년의 메르센 조약이나 880년의 리브몽(*Ribemont*) 조약, 카롤링 가문이 처음으로 서프랑크의 왕위에서 밀려나 왕조의 통일성이 깨진 888년, 동프랑크에서 그 가문이 단절된 911년 또는 작센 왕조가 들어선 919년, 오토 대제가 로마 황제로 즉위한 962년, 위그 카페가 프랑스 왕으로 즉위한 987년, 오토조가 끝난 1024년 등 다양한 시점들이 그런 기원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럼 과연 언제부터 ‘프랑스사’, ‘독일사’를 논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의 관건이 되는 프랑크제국 해체 이후의 역사, 특히 여러 왕국들의 관계사는 매우 복잡다단하며 또 추측으로 메워야 할 공백도 적지 않다. 다행히 최근에 베르너와 브뤼에 등이 이에 관한 탁월한 연구 성과들을 내놓고 있거니와, 여기서 이들의 연구 성과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논의들을 중심으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베르딩의 분할로 성립한 왕국들의 관계가 국가들 사이의 대외 관계라기보다는 여전히 프랑크제국의 틀 안에 있는 형제왕국들 사이의 대내 관계였으며, 통치자들을 동여매는 카롤링가의 울타리가 그러한 관계의 토대였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들은 서로 적대하고 충돌하기도 했지만 또한 수시로 만나면서 끊임없이 ‘형제관계(*fraternitas*)’를 확인했다. 840년부

터 874년까지 이들 사이의 ‘회합(convenientia)’은 무려 82차례나 거듭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2)</sup> 실상 843년의 분할은 돌이킬 수 없는 갈림길이기 커녕 클로비스의 왕국에서부터 면면히 이어진 분할 상속관행의 연장이었을 뿐이며, 언젠가 복원될 왕국의 통일성을 전제로 하는 가족 내부의 분할이었을 뿐이다. 당대인들이 이 사건을 그리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그 뒤로도 이런 일은 몇 번이고 되풀이되었으니 불과 12년 뒤인 855년에 장남 로타르의 왕국은 다시 세 아들 사이에서 이탈리아, 로타링기아, 프로방스로 분할되었고, 다시 20년 뒤에는 동생인 루트비히의 왕국에서 그의 생전에 예정된 대로 세 아들 사이에 같은 일이 일어났다.

870년대에 형제들 사이에서 또는 삼촌(대머리왕 샤를)과 조카들(루트비히의 아들들) 사이에서 벌어진 무력충돌은 제국의 해체를 드러내기보다는 분할된 유산의 복원에 대한 후계자들의 강렬한 집착을 보여준다. 실제로 885년 서프랑크의 제후들이 동쪽 왕국의 왕이자 로마황제인 뫼보왕 카를을 서프랑크의 왕으로 선출한 사건은 통일을 지향하는 어떤 관성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 다음 대인 아르눌프(루트비히의 손자)는 비록 서출이었지만 반세기여 만에 처음으로 좌장의 권위를 되찾은 동프랑크 왕(887-899)이었다. 제관을 쓴 896년 직전까지 그가 참석한 8차례의 회동이 모두 그의 영역 안에서 성사되었다. 그는 자신이 두둔하던 서프랑크 왕 로베르가의 외드(Eudes)를 제쳐두고 랭스 대주교가 893년 왕위요구자인 카롤링가의 샤를(단순왕 샤를 3세)을 옹립하자 대주교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가족의 정을 호소하는 대주교의 탄원을 접하고서야 외드의 군대에 밀려서 자신의 영역으로 피신한 젊은 친척을 맞아들였다.<sup>33)</sup>

10세기 초 동쪽 왕국에서 카롤링 왕조가 끊기고 919년 왕위가 카롤링가도 프랑크 혈통도 아닌 작센인의 수중에 넘어간 것 또한 근본적인 단절은 아니었다. 오토가(또는 Liudolfing가)의 왕들은 카롤링 혈통의 가족적 유대 대신 대등한 권리에 입각한 ‘우애(amicitia)’ 정책을 통해 과거의 통일성을 추구했

32) 한 연구에 따르면 840년에서 1299년에 이르기까지 양편의 군주들은 모두 120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M. Parisse, “L’amitié franco-allemande, il y a mille ans”, *L’Histoire*, No. 109(1988), pp. 88-89.

33) G. Bordonove, *Les Rois qui ont fait la France: Hugues Capet le fondateur*(Paris, 1986), pp. 63-67; C. Brühl, *Naissance de deux peuples*, p. 180.

다. 이들은 서쪽 왕국에서 권력을 다투던 두 경쟁 가문(카롤링가와 로베르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두 가문의 분쟁에 수시로 개입했다. 서로 다른 가문의 두 왕 하인리히 1세와 샤를 3세가 만나 상대방을 ‘동프랑크 왕’, ‘서프랑크 왕’으로 부르며 서로의 지위와 영역을 존중한 921년의 본(Bonn) 조약은 그러한 ‘우애’의 첫걸음이었다. 이듬해 서프랑크 제후들의 반란으로 궁지에 몰린 샤를이 로렌으로 피신했을 때, 하인리히는 반란세력에 의해 왕으로 선출된 외드의 동생이자 위그 카페의 조부인 네우스트리아 변경백 로베르와 923년 초 루르 강변에서 만나 새로운 ‘우애’를 맺었다. 그리고 같은 해 로베르가 전사하고 그의 사위인 부르고뉴 공작 라울(Raoul)에게 왕위가 넘어가자 이번에는 이 새 왕과 세르(피즈강 지류) 강변의 이부아(Ivois)에서 회동하여 현상태의 유지를 위한 ‘우애’를 맺었다.<sup>34)</sup> 동프랑크 왕으로서는 처음으로 마자르족을 저지하고 슬라브족과 데인족을 제압한 그의 눈부신 승리는 이 같은 대내정책의 성공을 밀거름으로 했고 또 그것을 뒷받침했다.

오토 1세는 이러한 부왕의 치적 위에서 좀 더 적극적인 팽창정책으로 나아갔다. 서프랑크왕국에 대한 통제력도 한층 더 강화되었다. 바로 그가 즉위한 해 서쪽의 왕위는 다시 카롤링가의 혈통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서쪽 혈통의 우위에도 아랑곳없이 역관계는 동쪽으로 더 기울었다. 이때부터 군주들의 만남은 주로 동쪽 왕국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졌다. 샤를 3세의 아들인 루이 4세(일명 ‘해외왕’)와 킹메이커이자 경쟁자였던 ‘프랑크인들의 공작’<sup>35)</sup> 위그(Hugues le Grand: 위그 카페의 아버지)는 모두 오토의 매부였고, 이들의 처남인 오토는 중재자를 자처하며 내정에 개입했다. 그는 940년 로렌의 반란 사태로 관계가 악화된 루이의 왕국을 공격하고 이때 위그의 신서를 받았으며, 5년 뒤에는 거꾸로 위그와 싸우던 루이를 원조하기 위해 또 다시 무력을 동원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만남과 대화는 단절되지 않았다. 942-950년에 오토와 루이는 7번 이상 회동했으며, 965년 성령강림절에는 루이의 아내(오토의 여동생 Gerbega)와 루이를 계승한 로테르 등 온 일가친척이 오토의 궁정에 모여 우애를 다졌다.<sup>36)</sup>

34) *Ibid.*, pp. 198-201, 207.

35) 이 새로운 직함은 파리 백작인 위그가 936년 루이 4세에게서 하사받은 것으로 당시 그가 막후의 실력자였음을 암시한다. Y. Sassier, *Hugues Capet: Naissance d'une dynastie*(Paris, 1987), p. 104.

36) C. Brühl, *Naissance de deux peuples*, pp. 214-216.

오토 대제는 과거 프랑크왕국의 영역 안에서 ‘족장(patriarque)’과 같은 권위를 누렸다.<sup>37)</sup> 948년 오토가 주선하고 루이와 함께 참석한 잉겔하임 종교회의는 그의 중재로 휴전한 두 경쟁자(루이와 위그)의 랭스 대주교구에 대한 영유권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루이의 탄원으로 이 회의에서 파문당한 위그는 얼마 뒤 루이와 타협하고 오토에게는 사자 두 마리를 선물로 바쳤다.<sup>38)</sup> 루이와 위그가 954년, 956년에 잇따라 사망한 뒤에는 13살의 로테르와 그 또래였던 위그 카페가 각각 뒤를 이었다. 미성년인 이 두 외사촌 형제의 후견인으로서 막후에서 실권을 쥐 인물은 바로 오토의 동생으로 쾰른 대주교이자 로렌 공작으로 봉해진 브루노(Bruno)였다.

로테르의 후견인인 브루노와 모후가 모두 죽고 오토 2세가 즉위하면서 두 왕국의 관계는 냉각되었다. 로테르보다 14살 연하였던 이 오토는 부왕과 같은 족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가 로테르에게 쫓겨 사촌인 자신의 궁정으로 피신한 샤를(로테르의 동생)에게 신서를 받고 바스로렌 공작령을 하사하자 978년 로테르는 아헨을 공격했고, 반격에 나선 오토는 샤를을 앞세워 파리 공략을 감행했다. 위그 카페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로테르는 생전에 상속자를 왕으로 축성하는 동프랑크의 관행을 좇아 그 이듬해 어린 아들(무위왕 루이 5세)을 후계자로 세우고 980년 셰르 강변에서 오토와 만나 로렌에 대한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우애’를 복원했다. 그러나 동생 샤를보다 더 무서운 경쟁자는 한 세기 전처럼 이번에도 파리를 지켜낸 로베르가의 지도자 위그였다. 오토와 로테르의 접근에서 배신감과 위협을 느낀 위그는 로마에 머물던 오토를 찾아가 예를 표하며 ‘우애’를 회복했다. 20년 전 쾰른에서처럼 로마에서 부활절을 맞아 오토의 대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서프랑크를 대표하는 하객은 로테르가 아닌 위그였다.<sup>39)</sup>

983년 동쪽에서는 오토 2세가 요절하고 4살의 오토 3세가 즉위했고, 서쪽에서는 986년 로테르의 뒤를 이어 즉위한 루이 5세가 이듬해 사냥 도중 사고

37) K. F. Werner, *Les origines (avant l'an mil)*, J. Favier (dir.), *Histoire de France*, t. 1(Paris, 1984), p. 546.

38) J. Zeller, *Histoire résumée de l'Allemagne et de l'Empire germanique*(Paris, 1889), pp. 203-204; G. Bordonove, *Les Rois*, pp. 109-115, 131; M. Parisse, “L'amitié franco-allemande”, p. 88.

39) Y. Sassier, *Hugues Capet*, pp. 164-169; C. Brühl, *Naissance de deux peuples*, pp. 246-248.

로 사망했다. 카롤링가의 마지막 혈손인 샤를과 로베르가의 위그가 대립하는 가운데 상리스에서 소집된 제후들의 선거회의는 한때 오토 2세와 함께 파리를 공격한 샤를 대신 위그를 새 왕으로 선출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선출 과정의 주역은 로렌 사람으로 오토 2세를 옹호했고 그래서 로테르와 그 아들에게 배신자로 낙인찍혔던 랭스 대주교 아달베롱(Adalbéron)과 중간에서 위그를 황제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애쓴 대주교의 측근 제르베르(Gerbert d'Aurillac)였다. 이렇듯 카페조의 탄생 이면에는 동프랑크 군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카롤링가와 오랜 왕위 경쟁이 끝나고 세습 왕조가 들어선 이후 동프랑크 군주의 영향력과 개입 여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군주들의 관계도 멀어져서 오토 3세와 경건왕 로베르는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었다. 위그를 왕으로 세워 제국으로의 통합을 도모하려던 아달베롱과 제르베르의 꿈도 물론 멀어져갔다. 그럼에도 카페왕조의 성립이 적어도 두 왕국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전환점이었다는 것은 아니다. 카페조 초기의 왕들이 이전보다 더 독립성을 추구한 것은 사실이라 해도 자신들의 왕국이 과거 프랑크제국의 틀 밖에 있다고 생각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sup>40)</sup> 이들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은 어떤 의식과 정책의 문제이기보다는 오토조가 이른바 ‘제국의 부활(Renovatio imperii)’ 이후 이탈리아 지배에 집착하는 한편 “막강한 공작에서 미약한 왕이 된” 위그 카페와 그 후계자들은 주위의 잠재적 적들에게 포위된 새 왕조의 생존을 위해 고투해야만 했던 상황의 문제였다.<sup>41)</sup>

하인리히 2세와 로베르는 1006년과 1023년에 단 두 번 만났다. 연대기작자인 라울 글라베르(R. Glaber)는 로베르가 이웃의 왕들, 특히 황제 하인리히와 화목하게 지냈다고 하면서 그 예로 1023년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에 따르면, 수행한 영주들 사이에서는 두 군주의 권세가 대등한데 어느 한쪽이 마치 다른 한쪽의 보호를 간청하러 가듯이 강을 건너 상대 진영으로 가는 것은 굴욕이니 배를 타고 강 중간에서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말들이 많았지만, 두 군주 모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라는 속담을 실천하여

40) *Ibid.*, pp. 257-258, 261.

41) 인용구절은 K. F. Werner, *Les origines*, p. 552. 카페조 초기의 위축된 상황은 무엇보다도 공문서의 양과 질, 부서인의 수와 지위 등에 관한 르마리니에의 분석을 통해 실증되었다. J.-F. Lemarignier, *Le gouvernement royal aux premiers temps capétiens*(Paris, 1965).

첫 날은 황제가, 이튿날은 로베르 왕이 이른 아침에 상대방 숙소로 찾아가 함께 포옹하고 미사를 보고 조찬을 들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우애의 매듭을 단단히 조였다”고 한다.<sup>42)</sup> 이로 미루어 보건대 예전처럼 동프랑크 군주의 궁정까지 찾아가 가족모임에 참석하고 충정을 표한다거나, 하물며 두 왕위의 재통합을 꾀하는 일은 이제 과거지사가 되어버린 것 같다. 하지만 브뤼엘은 이 같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두 정치체의 소격(疏隔)’은 어떤 급격한 단절도 없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방금 언급한 라울 글라베르가 두 군주의 치세에 “그들의 나라는 이민족들로부터는 안전했으나 잦은 내란으로 시달렸다”고 쓴 구절이 한 증거라는 것이다.<sup>43)</sup>

브뤼엘은 뒤이은 잘리어조의 콘라트 2세(1024-1039) 때에 ‘독일’과 ‘프랑스’의 분화가 임계점에 이르고, 12세기 초에 이르면 그러한 과정이 거의 종결되어 비로소 ‘독일사’, ‘프랑스사’가 시작된다고 결론짓는다.<sup>44)</sup> 그렇다고 해서 두 왕국의 관계가 어느 순간에 파열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1033년 콘라트 2세는 부르고뉴왕국을 침입한 블루아-상파뉴 백작 외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피즈 강변의 드빌(Deville)에서 앙리 1세와 만나 협조를 구하고 어린 딸(Matilda)과 사자를 선사하여 우애의 증표로 삼았다.<sup>45)</sup> 그리고 이 앙리는 다음 황제인 하인리히 3세와도 두 차례(1043, 1056년) 만나 ‘우애’를 갱신했다. 그러나 관계는 점점 더 냉각되어갔다. 1056년 이후 두 왕국의 군주들이 다시 얼굴을 맞댄 것은 1171년에 가서의 일이었다. 물론 이 같은 ‘냉각’조차도 의도된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보다는 제각기 자체의 문제에 매달려야만 했던 상황의 결과였다.<sup>46)</sup>

두 왕국의 관계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영토 문제, 특히 로렌 문제가 결정적인 분열의 불씨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거듭된 ‘우애’의 확인에서 나타나듯이 대체로 양쪽 군주들은 상대방의 영역을 존

42) Raoul Galber, *Chronique de l'an mil*, F. Guizot(trans.)(Paris, 2002), pp. 98-99.

43) *Ibid.*, p. 86; C. Brühl, *Naissance de deux peuples*, p. 282.

44) *Ibid.*, p. 285. 마르크 블로크 또한 “프랑스와 독일에 관한 한, 국민의식(민족의식--인용자)이 1100년 무렵에 이미 대단히 명백하게 나타나 있었다는 것은 여러 문헌들을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봉건제 제2기는 단지 국가의 형성만이 아니라 “조국이 확인되고 혹은 세워진 시대이기도” 했다고 말한다. M. 블로크, 『봉건사회 II』, 한경숙 역(한길사, 1986), 245-247쪽.

45) M. Parisse, “L'amitié franco-allemande”, pp. 88-89.

46) C. Brühl, *Naissance de deux peuples*, pp. 290, 293.

중하고자 했고, 그래서 로렌은 군주들에게 각별한 만남의 장소였다.<sup>47)</sup> 물론 로렌 지역은 완충지대이기보다는 치열한 쟁탈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다툼은 으레 국가 간의(즉 국제적인) 영토분쟁과는 거리가 먼 왕조 및 지배가문들 사이의 가족사와 개인적 원한들이 뒤얽힌 갈등에서 비롯되었다.<sup>48)</sup> 먼저 920년대의 충들은 동쪽에서 카롤링조가 단절되자 로타링기아 왕위를 차지한 단순왕 샤를 3세에게 반기를 든 기젤베르트(Giselbert. 에노 백작의 아들)가 본 조약에서 이 지역에 대한 권리를 양보한 하인리히 1세에게 접근하고 그의 군대를 끌어들이어서 일어난 것이다.<sup>49)</sup> 그 결과 로렌은 차후 하나의 공작령으로 동프랑크에 종속되었으며, 기젤베르트는 하인리히에게 공작의 지위를 하사받고 그의 딸(나중에 루이 4세와 재혼한 Gerbega)과 결혼했다. 그런데 10여년 뒤 기젤베르트가 이번에는 처남인 오토 1세에게 반기를 들고 로렌의 대귀족들과 함께 서쪽의 루이 4세에게 신서를 바침으로써 940년에 또 한 번 무력충돌이 빚어진 것이다. 아헨과 파리를 오가는 일진일퇴의 공방전으로 비화된 978년 사태 역시 오토 1세에게 에노 백작령을 빼앗긴 레니에(Régnier IV)와 랑베르 형제의 복수욕, 로테르의 동생인 샤를이 형수(로테르의 아내 엠마)와 랑 주교(Adalbéron de Laon, 일명 Ascelin)의 간통을 비방하여 추방된 것 따위의 복잡한 원한관계가 뒤얽혀 있었다. 973년 로테르보다 14살 연하의 처조카 오토 2세가 즉위한 것 또한 로렌에 대한 그의 야욕을 부추긴 한 요인이었다.<sup>50)</sup>

얼마 뒤 새 왕조를 연 위그 카페와 그 후계자들은 카롤링가의 왕들과 달리 이 가문의 요람인 로렌에 대한 미련을 접었다.<sup>51)</sup> 그 야심이 되살아난 것은 중세 말 두 왕국의 역관계가 역전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르러 978년의 공방전은 황제의 침략을 격퇴한 자랑스러운 선례로 기억되기 시작

47) I. Voss, “La Lotharingie, terre de rencontres X<sup>e</sup>-XI<sup>e</sup> siècles”, D. Iogna-Prat (éd.), *Religion et Coulture autour de l'an mil*(Paris, 1990), pp. 267-272.

48) J. Rovin, *France Allemagne: Deux nation, un avenir*(Paris, 1988), pp. 60-61.

49) R. Parisot, *Le royaume de Lorraine sous les carolingiens(843-923)*(Genève, 1975), Pt. IV, Livre II; J. Zeller, *Histoire résumée*, p. 187.

50) 랑 주교 아달베롱은 랭스 대주교 아달베롱의 조카였으며, 오토 2세의 총복으로 로테르와 대결하여 체포된 베르탱 백작 고드푸르아는 그의 형이었다. 이 대주교가 위그 카페의 추대에 앞장선 데에는 이 같은 가족사가 있었다. L. Theis, *L'avènement d'Hugues Capet, 3 juillet 987*(Paris, 1984), ch. 3; M. Schmidt-Chazan, “978: la première invasion allemande”, *L'Histoire*, No. 101(1987), pp. 18-25.

51) L. Theis, *L'avènement d'Hugues Capet*, p. 165.

했고, 마침내 로렌 지역을 프랑스에 귀속시킨 ‘위대한 세기’에는 침략자에 맞선 단합한 왕국의 승리로써 프랑스의 영유권을 정당화하는 외교적 논거로 이용되었다.<sup>52)</sup> 라인 강 — 대양, 피레네, 알프스와 함께 — 이 고래로 프랑스의 천연적 경계라는 이른바 ‘자연경계’설 역시 이 같은 사후의 팽창을 정당화하는 논리였다. 1300년경만 해도 미남왕 필리프는 교황에게 보낸 서한에서 프랑스와 제국의 경계를 네 하친(에스코-피즈-손-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로부터 시작된 라인강까지의 동진은 따라서 어떤 이론적 구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sup>53)</sup>

이 지역의 지배가문들이 정세에 따라 동쪽 또는 서쪽의 군주에게 의탁하고자 했다는 것은 이렇다 할 만한 귀속의식이나 민족의식 같은 것이 아직 없었음 — 뒤집어 말하면 프랑크왕국의 통일성에 대한 의식이 살아있었음 — 을 방증한다. 그런데 이는 로렌과 같은 경계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었다. 예컨대 854년에 페팽 2세(경건왕 루이의 손자)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아키텐 귀족들은 동프랑크 왕 루트비히 2세의 아들(청년왕 루트비히 3세)을 아키텐 왕으로 추대하며 그의 군대를 불러들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서쪽 왕국의 제후들은 대머리왕 샤를의 왕관을 동프랑크 왕에게 바치고자 했고, 이어서 879년 왕관이 루이 2세(말더듬이왕)의 아들대로 넘어갈 무렵에도 다시 동쪽의 왕에게 눈길을 돌렸다. 2세기 뒤에도 제후들은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두 왕국의 왕들과 제각기 연합할 수 있었다. 예컨대 1050년 무렵 앙주 백작(Geoffroy II)은 자신의 후처로 황제의 장모인 아녜스(Agnès de Bourgogne)와의 이혼 문제가 발단이 되어 앙리 1세와 연합했고, 아녜스의 아들인 아키텐 공작(Guillaume VII)과 블루아 백작(Thibaud III)은 황제 하인리히 3세와 연합했다.<sup>54)</sup>

베르너와 브뤼에 따르면 프랑크왕국은 ‘작은 프랑키아’와 그 밖의 여러 지배영역, 이를테면 동쪽의 작센, 바이에른, 쉬바벤, 로렌, 튀링기아, 프리슬란트, 그리고 서쪽의 아키텐, 부르고뉴, 브르타뉴, 셉티마니, 프로방스, 노르망디, 플랑드르 등 명칭과 지위에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모두 독립적인 ‘왕국들(regna)’로 이루어진 ‘왕국(regnum)’ — 말하자면 ‘수퍼 왕국’ — 이

52) M. Schmidt-Chazan, “978: la première invasion allemande”.

53) C. Brühl, *Naissance de deux peuples*, pp. 160-166; B. Guinée, “Les limites”, M. François (dir.), *La France et les français*(Paris, 1972), pp. 50-69 참조.

54) C. Brühl, *Naissance de deux peuples*, pp. 171-175, 292.

었다. 이들 왕국의 ‘소왕들(reguli)’은 그 영역 내의 “주종관계의 피라미드가 수렴하는” 종주였으며,<sup>55)</sup> 종종 선출된 왕을 ‘동등자들 가운데 제1인자(primus inter pares)’로 보려 했고, 때문에 이 선출된 왕은 자신의 종주권을 인정받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벌여야 했다. 세습과 선거 원칙이 맞서는 상황에서 이 소왕들은 왕위의 잠재적 경쟁자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고, 동·서 프랑크 왕들의 회동에 동석하거나 따로 만나서 ‘우애’를 맺는 당사자가 되기도 했다. 물론 아르놀프나 하인리히 1세, 오토 대제처럼 이민족들의 외침에 맞서 왕국을 수호해낸 경우라면 좀 더 수월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럴 경우에 국왕은 이들을 ‘우애’로 포용하거나 복속시켜 위성왕국으로 삼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이들은 외혼을 기피한 카롤링조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지배가문들 사이의 복잡한 결연의 그물망으로 얽혀 있었다. 예컨대 오토 대제의 대가족모임이 있었던 965년 무렵에 서프랑크 왕 로테르는 오토의 의붓딸(Emma)을 아내로 맞았고, 부르고뉴 왕 콘라트 3세는 로테르의 누이(Matilde)를 후처로 맞았다. 그리고 이 부르고뉴 왕의 후계자인 루돌프 3세가 1032년 후사 없이 죽으면서 지정한 왕국의 상속자는 마침내 이 왕국을 제국의 일부로 재통합한 동프랑크 왕 콘라트 2세였는데, 이 콘라트의 아내인 지젤이 바로 루돌프의 조카였던 것이다.<sup>56)</sup>

요컨대, 적어도 지배계층 안에서는 오늘날 흔히 독일과 프랑스로 잘못 등치시키는 동·서 프랑크왕국의 정체성보다는 종족과 지역 단위의 ‘작은 왕국들’의 정체성이 우선했다고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오토 3세 시대의 어떤 연대기작자도 로마인 또는 롬바르디아인과 나란히 프랑크인, 작센인, 바이에른인, 알라만인(쉬바벤인) 등을 나열할 뿐 이들을 모두 포괄하여 ‘독일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또 11세기 초의 한 연대기작자는 하인리히 1세의 후계와 관련하여 왕가의 대가 끊겨 “이방인들이 통치하는 것은 크나큰 징벌”이라고 썼는데, 이때의 ‘이방인’은 작센인이 아닌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sup>57)</sup> 같은

55) R. Mussot-Goulard, *La naissance de la France*(Paris, 1995), p. 218. 실제로 당대의 연대기들은 흔히 이런 제후령을 ‘왕국(regnum)’으로, 그 정부를 ‘왕정(monarchia)’으로 표기했다. Ibid., p. 205.

56) 이때 부르고뉴의 왕위를 놓고 콘라트 2세와 다툼을 벌인 인물이 앞서 언급한 블루아-상파뉴 백작 외드였는데, 그 역시 루돌프의 조카였다. R. Poupardin, *Le royaume de Bourgogne(888-1038)*(Paris, 1907), Pt. I, ch. 5.

57) Thietmar von Merseburg, *Ottonian Germany: The Chronicon of Thietmar of Merseburg*, D. A. Warner (trans.)(Manchester, 2001), I, 19, p. 81; T. Reuter,

시기에 랭스 수도원에서 서쪽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리세 역시 987년 위그 카페의 왕관 아래 놓인 종족들을 나열할 뿐 이들을 ‘프랑스인’으로 몽땅그리지 않았다.<sup>58)</sup> 923년 부르고뉴 공작 라울이 서프랑크 왕으로 즉위했을 때나 1031년 앙리 1세의 동생 로베르가 부르고뉴 공작에 봉해졌을 때나 이들은 모두 ‘이방인’으로 여겨졌다. 심지어 한 세기가 더 지나서도 루이 7세가 아키텐인들에게는 이방인이었던 것처럼 그의 왕비 알리에노르는 ‘프랑스인’은 아니었다.<sup>59)</sup>

그럼에도 이들의 의식에는 그런 ‘작은 왕국들’의 경계를 초월하는 하나의 프랑크왕국이라는 지평이 존재했으며, 어떠한 통치자든 자신을 그 지평 밖에 있는 존재로 생각할 수는 없었다. 보편군주권이란 알맹이 없는 이론이나 이념에 가까웠지만 여러 왕국들을 아우르는 어떤 제국적 질서가 있다는 관념은 허구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일반화하자면 대략 11세기까지 현실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작은 왕국들’과 의식 속에 엄존하는 프랑크왕국의 통일성, 이 이중의 차원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규정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사이의 중간적 정치체, 즉 ‘프랑스왕국’이나 ‘독일왕국’과 같은 이른바 ‘민족 왕국’은 그때까지 실체화하지 않았다. 그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잘라 말하기 어려운, 이를테면 미세한 균열들로 깊은 골이 패는 매우 장기적인 과정의 산물이었다.

#### IV. 맺음말: ‘경계 없는 역사’

‘서기 1000년의 교황’으로 잘 알려진 제르베르는 서프랑크 왕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아키텐의 평민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수도원에 입문하여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요 과학자로 성장했다. 그는 오토 2세와 오토 3세의 사부이자 측근이었으며, 위그 카페를 왕위에 앉힌 창업공신이자 그 아들 경건왕 로베

“The Making”, pp. 59-60.

58) C. Brühl, *Naissance de deux peuples*, pp. 255-256, 그가 열거하는 종족들은 “갈리아인(프랑크), 브리타니아인(브르통), 데인인(노르만), 아키텐아인, 고트인(셉티마니), 에스파냐인, 가스코뉴인”이다. Richer, *Historiarum libri*, IV, 12, p. 239.

59) C. Brühl, *Naissance de deux peuples*, pp. 136-137, 281. 이미 1867년에 오귀스탱 티에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12세기에 서부와 남부 지방의 주민들이 프랑스 국왕의 통치를 갈망했다거나 그들 영주의 통치를 찬탈 행위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이들의 통치가 그들에게는 국가의 통치였다……” A. Thierry, *Lettres sur l'histoire de France*(Paris, 1867), p. 35.

르의 스승이기도 했다. 랭스 대주교 아달베롱 아래서 성당학교를 맡은 이후 그는 세 군주(오토 2세, 위그 카페, 오토 3세)의 은혜로 보비오 수도원장(983), 랭스 대주교(991), 라벤나 대주교(998)를 지내고, 999년에는 실베스테르(2세)라는 이름으로 교황 자리에 올랐다.<sup>60)</sup>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의 교황인 실베스테르에게서 이어받은 이 이름에는 제국의 평화에 대한 그의 비전이 담겨 있었다. 이 이름도 그러려니와 그의 삶의 내력 자체가 두 왕국이 경계 없는 이웃이었음을 보여주는 더없는 증거이다.

아키텐 사람으로 태어난 제르베르는 프랑스인이기도 하고 독일인이기도 했으며, 따라서 프랑스인도 아니고 독일인도 아니었다. 그가 불과 8년 전 카롤링가의 루이(5세)를 손수 축성했던 아달베롱과 함께 위그 카페를 지지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카롤링가 사람이 아닌 일개 공작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역시 카롤링가 혈통이 아닌 작센인 황제의 영도 아래서 과거의 제국을 복원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보기에, 그리고 실제로도 오토 3세는 ‘독일 왕’이 아니었고 위그 카페는 ‘프랑스 왕’이 아니었다. 조르주 뒤비가 위그 카페의 즉위에서부터 기술하기 시작한 『프랑스사』에서 ‘프랑크인들의 왕’이 ‘프랑스 왕’으로 옮겨가는 것은 12세기부터이다. 게다가 저자는 존엄왕 필리프의 치세에 “권력의 역사에서 하나의 단절이 일어났으니, 그 단절이란 곧 프랑스 국가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말한다.<sup>61)</sup> 독일사의 경우에도 브뤼엘은 자신이 1972년에 하인리히 2세(1002-1024)를 최초의 독일 왕으로 단정한 것을 두고 “아무래도 콘라트 2세(1024-1039) 이전에 독일사를 논하는 것은 완전히 바보짓으로 보인다”고 반성하면서 12세기 초를 역사의 분기점으로 잡고 있다.<sup>62)</sup> 여하튼 그동안 양국의 역사학자들 사이에 그 시점을 점점 더 늦추어 잡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동안 두 나라의 중세사 서술이 ‘분열과 대립의 역사’에 너무 치우쳤다는 비판과 관련하여 우리는 익히 아는 바이지만 흔히 간과되어온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하나는 오토 대제 이후 독일 군주들은 서쪽 이웃

60) P. Riché, *Gerbert d'Aurillac: le pape de l'an mil*(Paris, 1987) 참조.

61) G. Duby, *Histoire de France*, t. 1: *Le Moyen Age: de Hugues Capet à Jeanne d'Arc*, 987-1460(Paris, 1987), p. 295.

62) 그는 그러한 분기의 결정적 시점을 제시하기란 불가능하지만, 굳이 상징적인 시점을 꼽으라면 필리프 1세가 황제 하인리히 5세에 맞서 교황청과 연합한 1107년을 꼽을 수 있다고 말한다. C. Brühl, *Naissance de deux peuples*, p. 304.

과의 관계보다는 이탈리아 경략에 골몰했고, 프랑스 군주들 또한 동쪽 이웃 보다는 노르망디에서부터 위 아래로 뻗어나간 잉글랜드 왕국을 더 경계했다는 사실이다. 실상 프랑크제국을 계승한 오토 대제와 그 후계자들에게 이탈리아 정책은 대외문제가 아니라 대내문제였다. 그들은 독일의 군주이기 이전에 이탈리아의 군주이기도 했으며, 따라서 왜 독일 군주들이 이탈리아에 집착했는가 하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sup>63)</sup> 한 마디로 이탈리아 경영은 독일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국 내부의 문제였다. 특히 하인리히 4세 이후로 3세기에 걸친 교황청과의 투쟁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시기의 반로마 감정으로 이어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독일인들이 가장 혐오한 대상은 이탈리아인이었으며 독일의 민족의식을 일깨운 타자도 주로 이탈리아였다. 한편 프랑스 군주들에게 잉글랜드 왕들은 “가장 가깝고도 강력한 봉신”<sup>64)</sup>이자 왕국의 서쪽 절반을 차지한 숙적이었다. 12세기부터 점화된 플랜태지넷조와의 투쟁이 중세 말 백년전쟁까지 이어졌고, 바로 이 과정에서 프랑스 민족의식이 성장하기 시작했음은 잘 알려진 바이다.<sup>65)</sup>

요컨대 두 왕국의 축수가 서로 라인 방면으로 쏠리기보다는 한쪽은 알프스 이남으로, 다른 한쪽은 서부의 변경과 해협 쪽으로 더 많이 뻗어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라인 방면에서 긴장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두 왕국의 역관계가 뚜렷이 역전된 가운데 프랑스의 동진이 시작된 중세 말부터였다. 그리고 백년전쟁을 거치면서 프랑스 군주정이 활력을 되찾고 그 여세를 몰아 일종의 ‘완충국가’에서 ‘제2의 로타링기아’가 된 부르고뉴와 더 멀리 이탈리아 반도에 까지 세력을 펼치면서 발루아가와 합스부르크가 사이의 대결이 본격화되었다.<sup>66)</sup> 그러나 이 장기간의 무력대결 또한 방금 말했듯이 왕조 간의 문제일 뿐이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중세부터 국가 간의 영토분쟁이나 민족적 대

63) 일레로 오토 1세(936-973)는 이탈리아 왕위에 오른 951년 이후 9년 반, 오토 2세(973-983)는 공동황제로 대관한 967년 이후 8년, 오토 3세(983-1002)는 친정을 시작한 994년 이후 4년 반을 이탈리아에서 보내 체류 기간이 거의 절반에 이른다. 한편 하인리히 2세(1002-1024)는 1년 7개월, 콘라트 2세(1024-1039)는 2년 10개월을 체류했다. *Ibid.*, pp. 240, 248, 259, 277, 287.

64) J. Rován, *France Allemagne*, p. 61

65) P. Contamine, “Mourir pour la patrie: X<sup>e</sup>-XX<sup>e</sup> siècle”, P. Nora (dir.), *Les Lieux de Mémoire* II/3(Paris, 1992), pp. 11-43; R. Gibson, *Best of Enemies: Anglo-French Relations Since the Norman Conquest*(London, 1995), Ch. 1.

66) J. Rován, *France Allemagne*, pp. 67-68.

립이 존재했다는 관념은 멀리 르네상스 시대의 고안물이거나 무엇보다도 1870년 이후 극에 달한 민족감정을 먼 과거로 투사한 결과인 것이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앞서 논의한 분기점 이후에도 두 왕국의 역사에서 정치적·군사적 대립은 문화적 교류에 비하면 그야말로 주변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sup>67)</sup> 우선 양쪽의 궁정을 오가며 조언자로, 사절로 활약한 제르베르의 후예들, 즉 성직자-지식인들이 있었으며, 변경지대에서 탄생하여 라인강 양편으로 급속히 뻗어나간 일련의 개혁교단들이 있었다. 부르고뉴와 푸아티에 출신의 두 황후(콘라트 2세의 아내인 지젤과 하인리히 3세의 아내인 아네스)는 클뤼니회의 후원자였고, 샤르트뢰즈회를 창설한 쾰른 출신의 성 브루노는 제르베르처럼 령스 성당학교를 지도했으며, 프레몽트레 교단을 창설한 성 노르베르트는 한때 하인리히 5세의 궁정 사제였다. 또한 시도회는 독일 북부의 개간 사업을 통해 교세를 넓혀 장차 비스툴라까지 뻗어갈 식민사업의 발판을 마련했다. 국적과 국경이 없기는 대학인들도 마찬가지였다. 파리 대학 초창기부터 독일 출신 유학생들이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이름을 남겼으며, 연대기작자인 오토 폰 프라이징은 학생으로, 당대 최고의 석학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와 쾰른에서 그에게 사사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수로 체류했다. 14세기부터는 “파리 대학을 본받아(ad instar studii parisiensis)” 독일에서 여러 대학들이 세워졌고, 독일인 동향단(natio)의 유학생들이 돌아가 학문을 이식했다.

이 밖에도 같은 이면에 켜켜이 쌓여있는 교류의 기억들을 떠올리거나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양편의 왕족 및 제후가문들 사이의 결연과 왕래를 통해 전파된 궁정문화와 갖가지 유행들, 피와 윤리와 생활방식 그리고 더 나중에는 언어까지 함께한 귀족사회의 문화, 음유시인들을 통해 수도 없이 각색되고 변안되고 모작된 채 공유된 시와 로망들, 아미앵과 쾰른 등지의 대성당을 닮은꼴로 만들어놓은 이른바 ‘프랑스 양식(opus francigenum)’의 유행과 장인들의 교류, 프랑스에 초빙된 독일의 광산기술자, 트루아의 독일인 상관이나 프로방스의 독일인 거리, 프랑크푸르트와 리옹의 정기시, 프랑스 연안을 누빈 한자상인들로 대변되는 경제적 교류, 그리고 11세기 말의 성지 원정에서 3세기 뒤의 니코폴리스 원정에 이르기까지 두 왕국이 주도했던 십자군운

67) 이에 관한 논의는 G. Zeller, *La France et l'Allemagne*, Ch. 4; J. Rován, *France Allemagne*, p. 62; *Les échanges culturels au Moyen Age*, XXXII<sup>e</sup> Congrès de la SHMES(Paris, 2002) 참조.

등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이 같은 공동의 기억들은 두 나라의 중세사를 대립과 분열보다는 대화와 교류의 관점에서, 그리고 통합적으로 재인식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 같은 공동의 기억들이 최근의 역사 연구 및 기술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또 어떠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두 국민들 사이의 화합과 우애를 복원하는 데 역사학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한남대 역사교육과)

〈투고일자: 2008. 7. 2, 심사일자: 2008. 8. 3, 게재확정일자: 2008. 8. 10〉

**주제어**: 민족사(National History), 프랑키아(Francia), 갈리아(Gallia), 게르마니아(Germania), 테우토니아(Teutonia), 알레마니아(Alemannia), 도이치(deutsch), 로타링기아(Lotharingia), 베르딩 조약(Treaty of Verdun)

## 〈참고문헌〉

- 강철구, 「중세 독일 국가의 형성」, 이민호 외, 『독일사의 제국면』, 느티나무, 1991.
- 김승렬·이용재, 『함께 쓰는 역사: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와 역사교과서 개선 활동』, 동북아역사재단, 2008.
- 블로크, M., 『봉건사회』, 한정숙 역, 한길사, 1986.
- 성백용, 「샤를마뉴에 대한 중세 독일과 프랑스의 엇갈리는 기억」, 『프랑스사 연구』 제 17호, 2007: 5-34.
- 손은주,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와 독일 민족의식」, 『독일문학』 제66집, 1998: 244-266.
- 안상준, 「중세의 민족의식과 카롤루스 마그누스: 독일·프랑스 신화적 민족사 서술과 통합적 유럽중세사의 지평」, 『역사교육』 제93집, 2005: 177-196.
- 전수연, 「골루아 베르생제토릭스 또는 재창조된 프랑스 고대의 영웅」, 『역사학보』 제173집, 2002: 247-280.
- 카이사르, 『갈리아 戰記』, 박광순 옮김, 범우사, 1990.
- 타키투스, 『연대기』, 박광순 옮김, 범우사, 2005.
- 폴브룩, M.,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 김학이 옮김, 개마고원, 2000.
- Annales Regni Francorum*, F. Kurze (ed.), Hanover, 1895.
- Beaune, C., *Naissance de la nation France*, Paris, 1985.
- Bloch, M., *The Ile-de-France: The County around Paris*, J. E. Anderson, trans., London, 1971.
- Bodin, J., *Méthode pour faciliter la connaissance de l'Histoire*, P. Mesnard, éd., *Oeuvres philosophiques de Jean Bodin*, Paris, 1951.
- Bordonove, G., *Les Rois qui ont fait la France: Hugues Capet le fondateur*, Paris, 1986.
- Brühl, C., *Naissance de deux peuples: Français et Allemands(IX<sup>e</sup>-XI<sup>e</sup> siècle)*, G. Duchet-Suchaux, trans., Paris, 1994.
- Contamine, P., "Mourir pour la patrie: X<sup>e</sup>-XX<sup>e</sup> siècle", P. Nora, dir., *Les Lieux de Mémoire* II/3, Paris, 1992: 11-43.
- Duby, G., *Histoire de France*, t. 1: *Le Moyen Age: de Hugues Capet à Jeanne d'Arc*, 987-1460, Paris, 1987.

- Echanges(Le)s culturels au Moyen Age*, XXXII<sup>e</sup> Congrès de la SHMES, Paris, 2002.
- Einhard & Notker the Stammerer, *Two Lives of Charlemagne*, L. Thorpe, trans. & ed., London, 1969.
- Gibson, R., *Best of Enemies: Anglo-French Relations Since the Norman Conquest*, London, 1995.
- Guenée, B., “Etat et nation en France au Moyen Age”, *Revue historique*, t. 481, 1967: 17-30.
- \_\_\_\_\_, “Les limites”, M. François, dir., *La France et les français*, Paris, 1972: 50-69.
- Guicheteau, G., “Les trois Europe de l’an 500”, *L’Européen*, Nos. 19-21, 1988: 20-25.
- Lemarignier, J.-F., *Le gouvernement royal aux premiers temps capétiens*, Paris, 1965.
- Morizet, J., Möller, H., dir., *Allemagne-France: Lieux et mémoire d’une histoire commune*, Paris, 1995.
- Mussot-Goulard, R., *La naissance de la France*, Paris, 1995.
- Nitschke, A., “German Politics and Medieval History”,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3, 1968: 75-92.
- Otto von Freising, *The Two Cities: A Chronicle of Universal History to the Year 1146 A. D.*, A. P. Evans, C. Knapp, ed., Columbia Univ., 1928.
- Parisot, R., *Le royaume de Lorraine sous les carolingiens(843-923)*, Genève, 1975(rep.).
- Parisse, M., “L’amitié franco-allemande, il y a mille ans”, *L’Histoire*, No. 109, 1988: 88-89.
- Pomian, K., “Francs et Gaulois”, P. Nora, dir., *Les Lieux de Mémoire* III/1, Paris, 1992: 40-105.
- Poujol, J., “Etymologies légendaires des mots *France* et *Gaule* pendant la Renaissance”, *PMLA*(Publ. of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Vol. 72, 1957: 900-914.
- Poupardin, R., *Le Royaume de Bourgogne(888-1038): Etudes sur les origines du royaume d’Arles*, Paris, 1907.
- Raoul Galber, *Chronique de l’an mil*, F. Guizot, trans., Paris, 2002.
- Riché, P., *Gerbert d’Aurillac: le pape de l’an mil*, Paris, 1987.
- Richer, *Historiarum libri*, H. Hoffmann, ed., <http://mdz10.bib-bvb.de/>

- ~db/bsb00000607/images/index.html?seite=1.
- Rovan, J., *France Allemagne: Deux nation, un avenir*, Paris, 1988.
- Sassier, Y., *Hugues Capet: Naissance d’une dynastie*, Paris, 1987.
- Schelhase, K. C., *Tacitus in Renaissance Political Thought*, Univ. of Chicago, 1976.
- Schmidt-Chazan, M., “978: la première invasion allemande”, *L’Histoire*, No. 101, 1987: 18-25.
- Reuter, T., “The Making of England and Germany, 850-1050: Points of Comparison and Difference”, A. P. Smyth, ed., *Medieval Europeans: Studies in Ethnic Identity and National Perspective in Medieval Europe*, New York, 2002.
- Theis, L., *L’avènement d’Hugues Capet, 3 juillet 987*, Paris, 1984.
- Thierry, A., *Lettres sur l’histoire de France*, Paris, 1867.
- Thietmar von Merseburg, *Ottonian Germany: The Chronicon of Thietmar of Merseburg*, D. A. Warner, trans., Manchester, 2001.
- Tulard, J., dir., *Les empires occidentaux de Rome à Berlin*, Paris, 1997.
- Turpin(Le) français, dit le Turpin I*, R. N. Walpole, éd., Toronto, 1985.
- Voss, I., “La Lotharingie, terre de rencontres X<sup>e</sup>-XI<sup>e</sup> siècles”, D. Iogna-Prat, éd., *Religion et Culture autour de l’an mil*, Paris, 1990.
- Werner, K. F., *Les origines(avant l’an mil)*, J. Favier, dir., *Histoire de France*, t. 1, Paris, 1984.
- Werner, K. F., *Structures politiques du monde franc, VI<sup>e</sup>-XII<sup>e</sup> siècles*, London, 1979.
- Wood, I., “Defining the Franks: Frankish Origins in Early Medieval Historiography”, S. Forde, eds., *Concepts of National Identity in the Middle Ages*, Univ. of Leeds, 1995.
- Zeller, G., *La France et l’Allemagne depuis dix siècles*, Paris, 1932.
- Zeller, J., *Histoire résumée de l’Allemagne et de l’Empire germanique: Leurs institutions au Moyen Age*, Paris, 1889.

## 〈Résumé〉

**Les deux royaumes voisins au Moyen Age:  
d'une histoire séparée à une histoire sans démarcation**

Baik-Yong SUNG

Cet article traite une question: à partir de quand l'histoire nationale de France et celle d'Allemagne ont commencées. Nous essayons d'y répondre en mettant les aspects terminologique et politico-diplomatique au point. Il en résulte quelques conclusions. D'abord, jusqu'à la fin du XI<sup>e</sup> siècle, les deux royaumes voisins n'avaient pas leurs propres désignations distinctives qui n'évoquaient plus leur origine commune, soit le royaume franc. Ensuite, jusqu'alors, les deux royaumes n'étaient pas des pays séparés. En effet ils tenaient des relations essentiellement internes au nom de *fraternitas* ou *amicitia*. En ce qui concerne l'identité nationale des peuples, elle était conditionnée par les doubles sentiments d'appartenir non seulement aux petits *regna* correspondant aux provinces, mais aussi au *Regnum Francorum* représentant un ordre impérial. Ils ne gardaient pas encore leur identité nationale française ou allemande. Par conséquent, la prétendue "monarchie nationale" ne constituait pas encore une entité politique. En réalité la séparation des deux royaumes était une conséquence de la "distanciation" graduelle. En plus, cette dernière était causée par leurs situations à la fois intérieures et extérieures plutôt que par les sentiments nationaux ou les objectifs politiques constants. On se doit rappeler, cependant, que leurs conflits politiques et militaires n'étaient que phénomènes marginaux par rapport aux échanges culturels fréquents entre les deux voisins.

## 〈Summary〉

**The Two Neighboring Kingdoms in the Middle Ages:  
From a Divisive History to a "History without Demarcation"**

Baik-Yong SUNG

This article deals with the question: when the national history of France and Germany began. The focus is put on the terminological and politico-diplomatic aspects. By the late eleventh century, in the terminological aspect, there was no distinctive and current designation for each kingdom and its people in general, the one which evoked the common origin of the Frankish Kingdom no longer. By the same age, in politico-diplomatic aspect, the relationship between both kingdoms was not the external or inter-state one but essentially the internal one in the name of *fraternitas* or *amicitia*. It can be accepted that the peoples' identity was defined by the dual levels of the small *regna* roughly fitting with the provinces and *Regnum Francorum* representing an imperial order. Consequently the so-called "national monarchy" in the medium level did not constitute a political entity. The disruption of the two kingdoms was a result of the gradual "estrangement", which was produced by their domestic and foreign situations, not by the certain consistent policies or the national sentiments. It must be kept in mind, however, that the subsequent political and military conflicts between both kingdoms were only marginal when they are compared with the frequent cultural interchanges between them.